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Traits of Family of Origin, Marital Conflicts and the Needs for Counselling among Married Couples in Early Stage of Marriage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 조성경*

부교수 최연실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Master : Cho, Sung-Kyoung

Professor : Choi, Uoun-Shi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characterized the family of origin among couples who had been married just for a few years, what types of conflicts they suffered, how they tackled their conjugal conflicts, what sorts of counseling services they needed in times of conjugal conflicts an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ies of origin and marital conflicts affected their needs for counsel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family rules and regulations, the biggest characteristic among the families of origin of the married couples investigated was that they were most aware of rules for living. The husbands were more conscious of them than the wives. Concerning their marital conflicts in each area, their conflicts were most triggered by their own personal characteristics, followed by communal life, a third person and their own conjugal relations.

Second, as for their needs for counseling, the married couples were highly willing to ask for counseling in times of conflicting with each other.

Third, concerning their perception of the rules of the family of origin, the husbands were more cognizant of them.

Fourth, regarding connections between needs for counseling and family rules, the group whose family of origin placed stronger emphasis on rules for living felt the higher needs for counseling.

It's attempted in this stud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counseling for married couples, on which few domestic studies have ever focused so far, and the effort to take a micro approach toward the counseling needs of married couples made it clear that their counseling needs might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family background variables and their own marital conflicts.

△주요어(Key Words) : 결혼초기 기혼남녀(marital couples in early stage of marriage), 상담요구(needs for counselling), 원가족특성(traits of family of origin), 가족규칙(family rules), 부모자아상태(parent ego state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s)

* 주저자 : 조성경 (E-mail : bbbible@daum.net)

I. 서 론

한국사회의 가족이 급격하게 소인수화 되어가면서 한국 가족은 자연스럽게 부부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에 이르는 부부 중 상당한 비율이 결혼초기에 속하는 부부들이다. 실제로 2003년도 통계청 조사¹⁾에 의하면, 동거기간 0~4년의 이혼율이 41,043건으로 24.6%, 5~9년이 38,613건으로 23.1%, 10~14년이 32,755건으로 19.6%, 15~19년이 24,861건으로 14.9%, 20년 이상이 29,822건으로 17.8%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혼 초기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초기의 부부들이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해 시간이 흐른 후에도 결국 이혼으로 결말을 맺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면 결혼초기의 이혼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율 증가 추세에 따라 이혼을 중재하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고자 국가와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혼과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기관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초기는 원가족과의 생활이나 독신생활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남이 결합하여 적응하는 시기로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융통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결혼초기는 부부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다른 환경에서 성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부부갈등의 요인으로는 성격, 가치관, 습관, 의사소통, 애정, 성, 경제생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부부갈등의 가장 큰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통계청 조사²⁾에 의하면, 이혼사유인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가족 간 불화,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중 성격 차이가 45.3%로 이혼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성격이란 가족 안에서 자라며 형성된 것으로 개인의 성장배경과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격 차이란 원가족의 영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가족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

안 사회적·심리적·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서 결혼한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심리적·정서적인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말한다(이종원, 2002). 이러한 원가족의 관련변인으로는 원가족 전체의 역동성, 원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자녀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강조되는 원가족 내의 규범, 원가족으로부터의 개인분화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핵가족 부부에게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은 서구보다 훨씬 더 강하다(이종원, 2002). 결혼하여 원가족과 따로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정서적·심리적으로는 확대가족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여진다. 유은희(1991)는 한국가족의 부부생활은 부부체계뿐 아니라 출생가족의 변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송성자(1998)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출생가족이 현재의 가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갈등의 원인을 이야기 할 때 주된 예로 많이 드는 것이 '성격 차이'인데, 이것은 원가족 내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므로, 원가족 관련변인은 부부갈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부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 초기의 부부관계는 성장배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합하여 상호 적응해 가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김혜경, 1986). 또한 이 시기에는 부부관계뿐 아니라 부모됨의 준비, 일과 가족의 조화, 재정계획, 친족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신혼기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유계숙·천혜정·김양호·전길양, 2003).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부부갈등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다. 그러한 부부들 중에는 갈등을 적극적으로도 적절히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여 결국 이혼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부부갈등의 인식은 변해가고 있다. 여러 가지 부부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관점은 점차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Bahr(1989)는 부부갈등의 긍정적인 기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갈등이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활발한 의견교환과 효과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갈등을 통한 가족규칙과 가족구성원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감정과 욕구 표출을 통한 가족원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으로 감정표출, 언어적·비언어적

1) 2004년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 2004년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폭력, 회피, 외부의 도움, 이성적 대처, 타협 등을 들 수 있다. 이전에 가족구성원이 많던 시대에는 가족 내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족 안에서 부부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 안에서 부부갈등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부부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결과 가족상담이나 부부상담의 관심과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되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에게 가사조정 기간을 두어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을 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부상담에 대한 학문적 성과나, 특히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특성과 현실에 따른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빈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 5년 이내가 되는 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의 원가족 특성과 부부갈등을 살펴보고, 상담요구별로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 중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족구조 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행동규범으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족규칙(김경자, 2004; 송성자, 1998; 이종원, 2002)과 가족 내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의해 학습되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변수로서 이론적 근거를 지니는 부모자아상태(김규수·류태보, 1993; 김충기·강봉규, 2001; 조용현, 1977)를 통해 원가족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사회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사회적 수요가 점차 높아질 부부상담, 특히 결혼초기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개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초기 부부

결혼초기는 각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을 떠나고 이전에 누리던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한 부부공동체로서 생활해야 하는 과도기적 생의 전환기이다. 부부는 서로의 습관이나 선호하는 바가 각기 다름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써 자신들이 심각한 부부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느끼기 쉬우며 자신들의 결혼이 오래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특히 그들이 평소 결혼에 대하여 지녀왔던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이상주의는 신혼기 부부의 적응에 큰 장애물이 된다. 결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현실을 대면해야 하는 실망감과 분노가 그 어느 시기보다 심각하다(유영주 등, 1995). 이밖에도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직업과 일에 관련된 문제나 가정경영, 가사일 등에서 다양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결혼 초기에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정현숙과 유계숙(2001)은 부모됨의 준비, 일과 가족의 조화, 재정계획, 친족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과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결혼초기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해야 하며, 자신과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노력과 인내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결혼 전의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정을 형성해야 한다. 효율적인 갈등해결 기술을 알고 능률적인 재정관리능력을 구사하며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관심을 가질 때 부부는 결혼초기의 많은 갈등을 보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 원가족특성

초기의 가족치료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보다 넓은 가족관계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가족치료자의 선구자인 Bowen은 현재의 가족을 형성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윗세대의 가족에게까지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송성자, 2002: 171-176). 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와 Fine(1985)은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어떤 사람이 정서적·정신적·심리적인 삶을 시작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종원(2002)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오는 동안 사회적·심리적·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속했던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사람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하면 과거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원가족의 근원적인 영향력은 깊이 스며들어 결혼을 통하여 새롭게 가족을 이룬 개인과 그 개인의 현재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가족에 대한 몇 가지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Olson과 Hawley(1992)는 부부가 자신의 원가족과 유사한 가정을 이루거나 원가족에 대한 반발로 정 반대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고, 두 사람이 성장해온 가족의 패턴이 서로 차이가 날수록 이들의 결혼생활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Wambolt와 Reiss(1989)는 16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원가족의 영향을 연구하고 1년 후에 추후 조사를 한 결과, 부부의 현재가족 상황은 부인의 원가족에서의 행복했던 경험과 남편의 원가족에서의 갈등적인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의 원가족특성이나 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김순기, 2001; 남순현, 2001; 전춘애, 1994; 최명민, 1999; 최현미, 1997). 원가족의 건강성 개념에 대해 최현미(1997)는 가족이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격려하는 정도로, 남순현(2001)은 가족구성원이 자율성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한편, 원가족의 경험과 결혼적응,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전춘애(1994)는 원가족의 건강수준이 부인보다 남편의 결혼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순기(2001)는 기혼남녀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연구에서 남녀의 성차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규칙과 부모자아상태를 통해 원가족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 가족규칙은 원가족 내의 규범으로 개인들에게 내면화되며, 부모자아상태는 가족 내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통해 학습되어 개인 내적·외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성인이 되고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가족규칙

가족규칙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행동, 인식에 관한 규범으로 그 힘이 강력하여 자녀의 성장경험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가족규칙에 관하여 Satir는 Jackson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가족구조 내에서 필수적이며 역동적이고 영향력이 강한 행동규범'으로서 가족규칙을 정의하였다. Jackson은 가족 규칙을 행동영역 및 내용과 상호작용에 있어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관계 협정으로 보고, 가족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 체계이며, 가족 구성원들은 조직화된 가족 체계 내에서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며, 행동의 유형들은 가족생활을 지배하는 규칙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송성자, 1998: 323에서 재인용).

한국 가족구조에서 우리의 의식구조와 행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족규칙의 일반적인 예를 든다면, 일상생활에 관한 생활규칙, 부모와 어른에 관한 위계규칙, 남녀성별에 관한 성과 성역할 규칙, 가족이 갖고 있는 신화나 비밀에 관한 규칙, Satir가 중점을 둔 감정규칙 등을 들 수 있다(송성자·정문자, 1994; 이경희·옥선화, 1999; 이종원, 2002).

가족규칙에는 지침, 동기, 한계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사

회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많은 규칙들은 가족구성원의 관계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방법을 조직하도록 제한하고 한정짓는다.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규칙에 관하여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이러한 규칙들은 가족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규칙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성자(1985)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가족규칙을 강하게 지각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과 자신에게 통제적·지시적 자아상태를 나타내고,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lmbeck와 Hill(1991)의 연구에서는 열다섯 가지 상황에서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규칙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부모들이 또래 관계에 관한 규칙보다는 개인적인 습관과 가족 내에서 책임감에 관한 규칙을 청소년에게 더 강조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좀 더 많은 규칙을 자녀에게 강조한다고 보고하였다(Abbott, 1999에서 재인용). Gee(2001)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가족규칙과 갈등해결방식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가족규칙과 가족갈등 전략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한 갈등해결방식은 회피였다고 밝혔다.

한편, Abbott(1999)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문항 리스트에서 가족규칙과 부모의 기대, 부모의 선호, 그 외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여러 내용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게 하고, 각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족규칙에 속하는 행동범주가 다른 여타의 것보다 위계적이며 구조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피험자들이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의 기대는 규칙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며, 기대와 선호가 가족규칙 다음으로 위계적이며 구조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2) 부모자아상태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 경험, 사건의 인식, 이러한 사건과 관계된 감정, 기억 속에 남아있는 치명적인 손상 등은 녹화테이프처럼 오래도록 뇌나 신경조직에 기록되어 잔존한다. 이러한 경험이 다시 작동되면 그 당시의 기억과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억과 경험을 담고 있는 저장소를 교류분석에서는 '자아상태'라고 하였다(김충기·강봉규, 2001). Berne(1964)은 자아상태(ego-states)를 '감정 및 사고, 이에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종합한 하나의 체계이며, 일관된 감정과 경험의 유형이 그에 상응하는 일관된 행동 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상태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초자아, 자아, 원초아라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성격구조와는 달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의식할 수 있는

것, 혹은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생각, 느낌, 행동의 방식을 가리킨다.

Berne은 이 자아상태를 부모자아상태, 성인자아상태, 어린이자아상태로 분류하였다. 부모 또는 부모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을 본 판 행동·사고·감정을 부모자아상태라고 하며, 지금-여기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으로서의 행동·사고·감정을 성인자아상태, 아동기 시절부터 재연되고 있는 행동·사고·감정을 어린이자아상태라고 한다. 여기서 부모자아 상태는 주로 부모나 그 밖의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학습된 생활개념으로 이는 다시 통제적 부모자아와 양육적인 부모자아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적 부모자아는 주장하고 비평하며 처벌적인 완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부모자아를 의미하며, 양육적 부모자아는 어린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으로써 동정적·보호적·양육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김충기·강봉규, 2001).

자아상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춘(1989)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유교의 핵심에 효가 있다고 밝히고, 효를 부자관계라는 남성적 혈통계령에 근거한 존경의 덕으로 보아 이것을 교류분석의 입장에서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여러 유형 중에 특히 부모의 통제적 부모자아 상태(critical parent)와 자녀의 순응적 어린이자아 상태(adapted child) 관계에서 보이는 수직적 효가 자녀의 품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당위적인 것으로 여겨져 자녀가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을 포기하고 주위환경의 요청에 쉽게 부응하려고 눈치를 보게 하며, 자녀에게 성인자아(adult ego)를 활동할 기회를 제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적인 어린이자아상태(natural child)와 자녀의 양육적인 어린이자아상태가 상호작용할 때 친밀감을 통해서 일치의 관계에 도달할 가능성은 크지만 연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적고 자녀가 지나치게 의존적인 품성을 갖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효의 구조는 성인자아상태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Dusey(1977)는 건강한 사람의 형태를 성인자아 상태를 정점으로 하는 종형으로 제시하였는데, 스키다 미네야스와 Dusey 두 학자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통제적 부모자아상태나 순응적 어린이자아상태가 높을 경우 관계 속에서 현실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조용현, 1977에서 재인용). Kendra(1977)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Rorschach 기록으로부터 Egogram을 작성한 결과,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Egogram이 양육적 부모자아상태와 자유로운 어

린이자아상태가 낮은 반면, 통제적 부모자아상태와 순응적 어린이자아상태가 현저하게 높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규수·류태보, 1993에서 재인용).

한편, Thomson(1972)은 TA전문가 패널들에게 피험자들의 아홉 시간의 집단치료회기를 레코딩하여 그들의 부모·성인·어린이자아상태를 판단하도록 한 다음 피험자들을 일주간 훈련시킨 뒤 그들의 자아 상태를 다시 점검한 결과, 자아상태의 변화가 컸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Berne과 초기 교류분석치료자들이 주장했던 자아상태가 관찰 가능하며, 인간이 자아상태를 탐지하여 분류하고 모방할 수 있고, 연구 관찰에 의해서 인간의 모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교류분석(TA)에 토대를 둔 개념인 부모자아상태를 원가족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의 하나로 사용한다.

3. 부부갈등

1) 부부갈등 개념

부부갈등에 대한 개념은 갈등이론, 정신건강, 가족관계,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갈등 원인이나 갈등영역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내리고 있다.

갈등이론을 가족에 맨 처음 접목시킨 Sprey(1971)는 가족갈등을 회소자원, 경쟁적 수단, 양립 불가능한 목적 또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한 개인 혹은 집단간의 적대감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갈등이론적 관점에서 본 가족갈등은 가족원들 간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쟁취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갈등이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이종원, 2002). 다시 말해, 갈등이란 개인적·사회적인 변화의 출발점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위기인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가족갈등을 가족체계 혹은 사회체계의 기능을 유지, 통합시키는 긍정적 갈등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leman(1984)은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를 부부갈등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것은 가족관계적 갈등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 부부갈등의 많은 국내 연구들(김혜경, 1986; 이경희, 1997; 이신영, 1983; 이종원, 2002; 조유리, 2000)이 이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갈등이란 "가족 내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부부갈등 영역

부부갈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이 부부갈등 영역으로 설정한 것을 살펴보면,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한 다양한 부부갈등 영역 설정에서도 일반적인 틀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영자, 1992; 김혜경, 1986; 변화순, 1992; 이경희, 1997; 이신영, 1983; 최규련, 1995)의 경향을 살펴보면,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개인적특성영역, 부부관계적특성영역, 공동생활특성영역, 제삼자특성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개인적특성영역은 각 배우자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사고방식, 성격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부부갈등영역이다. 부부관계특성영역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애정, 성,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부갈등 영역이다. 공동생활특성영역은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주거·주택계획, 금전관리·소비, 여가생활, 가사노동분담에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갈등 영역이다. 제삼자특성 영역은 부부 두 사람 이외의 관계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자녀훈육·교육, 친·인척, 직장이나 사회활동에서 기인한 부부갈등 영역이다(이경희, 1997).

부부갈등에 있어서 성격문제는 부부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결혼생활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광배희(1994)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남편과 아내 모두 성격 차이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갈등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김갑숙·최의선, 1992; 한남제, 1984)에서는 성격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내가 남편에 비해 성격요인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자, 1992; 김혜경, 1986; 송말희, 1990).

가족형태에서 핵가족과 확대가족 간의 부부갈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김혜경, 1986; 홍원표, 1993), 이는 한국의 가족이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확대가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부부갈등 해결방식

갈등은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Prager, 1991). 또한 Strong(1975)도 부부 친밀감의 획득은 부부갈등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의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Sprey(1971)는 부부 또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적인 갈등관리방법을 합의, 협상, 타협,

권력, 영향력, 공격, 위협, 약속, 회피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경희(1997)는 사용 갈등해결방식에 따라 크게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긍정적 문제해결, 회피로 구분하였다.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으로는 비난, 잔소리,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이 있고, 긍정적 문제해결에는 협상, 주변사람의 조언, 전문가나 책을 통한 정보 획득 등이 있다. 그리고 그냥 참거나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피하는 등의 행위는 회피에 포함된다. 고현선과 지금수(1995)는 부부간의 갈등 대처유형과 태도에 대해 비난, 공격, 이성적 태도, 회피, 양보, 무관심, 폭력, 비관 등을 제시하였다.

갈등을 기술적으로 잘 해소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부부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부부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부부 간의 갈등대처에 있어 Thomson과 Walker(1991)는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인이 결혼생활에 대해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지각하며 갈등을 해결해야 될 책임자로 자신을 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노치영·최혜경, 1996에서 재인용). 국내연구의 대부분은 남편이 주로 이성적이거나 행동표출 유형을 취하고 부인은 방어적 갈등대처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치영·최혜경, 1996; 송말희, 1990; 최규련, 1995).

조유리(2000)는 가족형태와 갈등관리형태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의 특성으로 여겨지는 확대가족 형태는 남편이 가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전통적인 기대감이 존재하여, 핵가족 형태와는 가정 내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족형태에 따른 갈등관리태도에 대한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부부상담

부부상담은 개인상담을 하던 정신분석학자들이 1930년대 초에 처음으로 부부상담의 경험을 발표하고 가족과 부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결혼상담기관을 세워 커플치료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부부상담은 개인 내면에 초점을 두는 개인상담과는 달리, 개인을 포함한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Brown, 2002). 가족은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의 세 가지 하위체계를 포함하는데, 그 중 부부관계는 가족의 첫 번째 형태이고 가족기능의 중심을 차지한다. 또한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상호관계뿐 아니라 각 개인의 성숙과 상호만족을 추구하고, 애정과 감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관계와는 확연히 다르고 훨씬 더 복잡하다. Freud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

인심리치료를 하던 정신분석학자들이 가족의 상호작용과 체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혼·가족상담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Goldenberg & Goldenberg, 2000).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지만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에서 부부관계는 상호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개인심리상담보다는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부상담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성별에 따른 원가족 특성(가족규칙, 부모자아상태), 부부갈등(부부갈등 영역, 부부갈등 해결방식, 상담요구)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가족규칙, 부모자아상태)은 부부갈등(갈등 영역, 갈등 해결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가족규칙은 부부갈등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가족규칙은 부부갈등 해결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부모자아상태는 부부갈등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4 부모자아상태는 부부갈등 해결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결혼초기 기혼남녀에서 상담요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원가족특성(가족규칙, 부모자아상태), 부부갈등(갈등 영역, 갈등 해결방식)은 차이가 있는가?

3-1 상담요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가족규칙은 차이가 있는가?

3-2 상담요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부모자아상태는 차이가 있는가?

3-3 상담요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부부갈등 영역은 차이가 있는가?

3-4 상담요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부부갈등 해결방식은 차이가 있는가?

2. 변수의 정의

1) 원가족특성

원가족 특성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심리적·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자녀의 경우 결혼하여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심리적·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김순기, 2001; 송성자, 1998; 이종원, 2002)이 보여주는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하위개념이 포함된다.

(1) 가족규칙

가족규칙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족구조 내에서 필수적이며 역동적이고 영향력이 강한 행동과 의식에 관한 규범으로 정의한다(김경자, 2004; 송성자, 1998; 이종원, 2002). 이것은 생활규칙, 성·성역할규칙, 위계규칙, 감정규칙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2) 부모자아상태

부모자아상태란 선행연구에 따라 부모를 비롯한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생활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통제적 부모자아상태와 양육적 부모자아상태로 나누어진다(이기춘, 1989; 이종원, 2002).

① 통제적 부모자아상태: 주장적·비판적·처벌적이며 완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부모자아상태를 말한다.

② 양육적 부모자아상태: 어린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자아로 동정적·보호적·양육적 방식으로 기능하는 부모자아 상태를 말한다.

2) 부부갈등 영역

부부갈등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족체계 안에서 부부가 각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오해나 상호 이해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나 긴장을 말한다(김재경, 1991; 송말희, 1990; 이경희, 1997; 이신영, 1983). 여기에는 개인적특성영역, 부부관계특성영역, 공동생활특성영역, 제삼자특성영역이 포함된다.

3) 부부갈등 해결방식

부부갈등 해결방식이란 선행연구(송말희, 1990; 이경희, 1997; 이영자·장영애, 2002)를 참고로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갈등상황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행동방식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사용 방식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긍정적 문제해결, 회

피로 구분한다.

4) 상담요구

상담요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V. 연구방법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 특성의 가족규칙과 부모자아상태, 부부갈등 영역, 부부갈등 해결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대상, 조사도구의 구성,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결혼초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원가족특성과 부부갈등, 상담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결혼초기에 해당되는 결혼지속연수를 5년 이하로 보고 이에 해당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녀가 없거나 1명 이하인 남녀로 한정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가족규칙(부부가 지각한 원가족의 가족규칙)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송성자·정문자, 1994; 이경희·옥선화, 1999)를 바탕으로 이종원(2002)이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3문항 중 생활규칙에 관한 문항이 5문항,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이 7문항, 위계에 관한 규칙이 6문항, 감정규칙이 5문항으로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규칙에 관한 문항으로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항상 성실해야 한다' 등이 있으며, 성·성역할에 관한 문항으로는 '남자는 말이 적어야 한다',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 등이 있다. 위계규칙에 관한 문항으로는 '부모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등이 있으며, 감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해줄 때까지 기다린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에 따라 '그렇지 않다'가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점, '그저 그렇다'가 3점, '대체로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다. 점수의 범위는 총 23점~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내에서 지켜져 온 가족규칙을 부부 각자가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79로 신뢰할 만한

수치를 보였다.

2) 부모자아상태

부모자아 상태척도는 한국 표준화 Egogram(KEG) 성인용 점검표(김충기·강봉규, 2001) 총 50문항 가운데에서 부모자아상태 점검 문항에 해당되는 2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20문항 중 통제적 부모자아 상태와 양육적 부모자아 상태에 대하여 각각 10문항씩 구성되어있으며, 통제적 부모자아 상태에 관련된 문항은 홀수 번호에, 양육적 부모자아 상태에 관련된 문항은 짝수 번호에 배치하였다. 통제적 부모자아 상태에 관한 문항은 '사태의 흑백을 명백히 가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편이다' 등이 있으며, 양육적 부모자아 상태에 관한 문항은 '인정을 중요시한다',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에 따라 '그렇지 않다'가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점, '그저 그렇다'가 3점, '대체로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다. 점수의 범위는 양육적 부모자아상태와 통제적 부모자아상태 각각 5~5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적 부모자아상태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72이었으며, 양육적 부모자아상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3이다.

3) 부부갈등 영역

부부갈등 영역 척도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규련(1995)이 작성한 척도와 이경희(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개인적특성영역에 관한 것으로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관련한 문항이 4문항, 부부관계특성영역으로 '성생활' 및 '대화문제'로 인한 갈등 관련문항이 4문항, 제삼자특성영역으로 '자녀지도', '사회생활', '친인척' 관계 관련문항이 4문항, 공동생활 특성영역에 관련된 문항이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에 따라 1점~5점으로 점수를 주며 '전혀 없었다'가 1점, '거의 없었다'가 2점, '가끔 있었다'가 3점, '자주 그랬다'가 4점, '항상 그랬다'가 5점이다. 점수의 범위는 16~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이다.

4) 부부갈등 해결방식

부부갈등 해결방식 척도는 이경희(1997)의 척도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총 문항은 17문

항으로 사용방식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관련 문항이 6문항, 긍정적 문제해결 관련 문항이 6문항, 회피 관련 문항이 5문항으로 총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에 관한 문항에는 '배우자에게 모욕을 주었다' 등이 있으며, 긍정적 문제해결에 관한 문항으로는 '주변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다', '의견 차이를 건설적으로 논의했다' 등이 있다. 회피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배우자의 말을 무시한 채 지냈다', '그냥 참았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방식에 따라 1점~5점으로 점수를 주며 '전혀 없었다'가 1점, '거의 없었다'가 2점, '가끔 있었다'가 3점, '자주 그랬다'가 4점, '항상 그랬다'가 5점이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이 .85, 회피가 .76, 긍정적 문제해결이 .73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5) 상담요구

상담요구는 선행연구(김명자, 1998; 정의숙, 2001)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변인으로는 상담의사,

상담지원 종류, 상담기간, 상담횟수, 상담인원, 상담형태, 상담자의 성별과 연령, 상담장소 등을 포함한다.

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설문은 2004년 9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실시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초기 5년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와 훈련받은 조사원이 가정, 회사, 공공기관, 교회, 병원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들을 접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주로 연구자와 안면이 있는 가정주부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알린 후 눈덩이표집을 사용, 한 사람으로부터 3쌍 내지 10쌍의 자료를 얻었다. 7개 회사와 3개 공공기관, 5개 교회, 3개 병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얻었으며, 방문조사 외에 우편, E-mail을 통하여서도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나 그 중 271부(회수율 84.7%)이 회수되었고, 이 중 무응답이 많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질문지 26부를 제외하고 245부만을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5

내 용	합계		내 용	합계	
		빈도 (%)			빈도 (%)
연령	전 체	245 (100)	교제 기간	1년 미만	57 (23.4)
	25세 미만	9 (3.7)		1년이상~2년미만	60 (24.6)
	26~30세	95 (38.8)		2년이상~3년미만	48 (19.7)
	31~35세	106 (43.2)		3년이상~4년미만	20 (8.2)
	36세 이상	35 (14.3)		4년이상~5년미만	16 (6.6)
배우자 연령	25세 미만	5 (2.0)	결혼 형태	5년 이상	43 (17.6)
	26~30세	88 (35.9)		중매	10 (4.1)
	31~35세	111 (45.3)		연애	191 (78.0)
	36세 이상	41 (16.7)		중매+연애	44 (18.0)
본인 직업	전문직	56 (22.9)	자녀 유무	있음	127 (51.8)
	관리직	5 (2.0)		없음	87 (35.5)
	사무직	69 (28.2)		임신중	31 (12.7)
	판매·서비스직	19 (7.8)	결혼 지속 기간	1년 이하	62 (25.3)
	생산·노무직	16 (6.5)		2년 이하	49 (20.0)
	자영업·사업	11 (4.5)		3년 이하	37 (15.1)
	주부	51 (20.8)		4년 이하	33 (13.5)
	학생	10 (4.1)		5년 이하	64 (26.1)
	기타	8 (3.2)	동거 가족	배우자	109 (44.5)
배우자 직업	전문직	60 (24.5)		배우자 + 자녀	89 (36.3)
	관리직	6 (2.4)		배우자 + 배우자가족	26 (10.6)
	사무직	49 (20.0)		배우자 + 본인가족	14 (5.7)
	판매·서비스직	10 (4.1)	기타	7 (2.9)	
	생산·노무직	10 (4.1)	대화 시간	10분 이하	9 (3.7)
	자영업·사업	26 (10.6)		30분 이하	53 (21.6)
	주부	61 (24.9)		1시간 이하	75 (30.6)
	학생	11 (4.5)		2시간 이하	40 (16.3)
	기타	12 (4.9)		2시간 이상	68 (27.8)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Window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원가족특성(가족규칙, 부모자아상태), 부부갈등(갈등 영역, 갈등 해결방식), 상담요구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을 사용하였다.

셋째, 원가족특성(가족규칙, 부모자아상태), 부부갈등(갈등 영역, 갈등 해결방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담요구별로 원가족특성의 가족규칙, 부모자아상태와 부부갈등 영역, 갈등 해결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남성이 110명(44.9%), 여성이 135명(55.1%)으로 총 245명이며, 25세 미만이 9명(3.7%), 26~30세가 95명(38.8%), 31~35세가 106명(43.2%), 36세 이상이 35명(13.3%)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31.5세이다. 학력은 대졸이 123명(5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가 58명(23.6%), 대학원 이상이 33명(13.5%), 전문대 졸업이 22명(9%), 재학생이 9명(3.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2.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 부부갈등과 상담 요구

본 연구에서 원가족의 가족규칙과 부모자아상태, 부부갈등 영역과 부부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도 t검증을 실시하였고, 상담요구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1) 원가족특성

원가족의 가족규칙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규칙이 19.75점, 성·성역할규칙이 18.86점, 위계규칙이 17.19점, 감정규칙이 13.90점으로 총 평균은 72.78점이었다. 중간 점수를 고려해 볼 때, 대체로 미혼부부들이 지각한 원가족에서의 가족규칙 중 생활규칙은 강한 편이며, 나머지 성·성역할규칙, 위계규칙, 감정규칙 등은 약한 편이다. 원가족의 가족규칙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각 하위영역 중에서 생활규칙($t=-2.41, p<.05$), 성·성역할규칙($t=3.94, p<.001$), 감정규칙($t=4.96, p<.001$)에서 유의미했으며, 감정규칙과 성·성역할규칙은 남성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고 생활규칙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계규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자아상태에 대한 결과는 양육적 부모자아의 평균점수가 35.54점, 통제적 부모자아의 평균점수가 27.24점으로 양육적 부모자아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중간점수를 고려해볼 때, 미혼부부들이 지각한 부모자아상태 중 양육적 부모자아는 강한 편이며, 통제적 부모자아는 약한 편이다. 부모자아상태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양육적 부모자아와 통제적 부모자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원가족특성에 대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

변수		남 평균(표준편차)	여 평균(표준편차)	합계 평균(표준편차)	t 값	
원가족 특성	가족 규칙	생활규칙	19.26(3.00)	20.14(2.61)	19.75(2.81)	-2.41*
	성·성역할규칙	20.17(4.77)	17.14(4.50)	18.86(4.76)	3.94***	
	위계규칙	20.18(4.17)	20.29(4.29)	17.19(3.25)	-0.20	
	감정규칙	15.09(3.74)	12.93(2.90)	13.90(3.47)	4.96***	
부모 자아 상태	총합	74.78(10.30)	71.16(9.98)	72.78(10.26)	2.77**	
	통제적 부모자아	26.93(5.59)	27.49(4.98)	27.24(0.77)	-0.83	
	양육적 부모자아	35.72(5.19)	35.39(4.44)	35.54(5.25)	0.53	

* $p<.05$, ** $p<.01$, *** $p<.001$

2) 부부갈등

부부갈등 영역별 정도를 살펴보면, 개인특성영역이 10.80 점, 부부관계특성영역이 8.51점, 공동생활특성영역이 9.09 점, 제삼자특성영역이 8.68점으로 총 평균은 37.07점이었다. 중간점수를 고려해볼 때, 미혼부부들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네 하위영역이 모두 중간수준보다 낮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이 부부관계특성영역이며, 가장 높은 것이 개인특성영역이다.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각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관계특성영역($t=2.04, p<.05$)만이 남성과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개인특성영역과 공동생활특성영역, 제삼자특성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갈등 해결방식은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이 11.16점, 회피가 11.73점, 긍정적 문제해결이 17.69점으로 긍정적 문제해결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점수를 고려해볼 때, 언어적·비언어적 공격과 회피 모두 대체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이 회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 문제해결은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회피, 긍정적 문제해결의 세 하위영역 모두 남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에 대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3) 상담요구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상담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별로 영역과 세부내용의 빈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으로 조사 대상자의 4.1%이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35명으로 95.9%로 대부분이 상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받지 않은 이유는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51명

(6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변에 상담 할 곳이 없어서'가 31명(12.7%), '기타'가 24명(9.8%),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7명(6.9%), '시간이 없어서'가 14명(5.7%)을 차지하였다. 부부갈등 발생 시 상담의사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반 이상인 51%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니오'가 23.3%, '모르겠다'가 25.7%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아니오'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배에 달하는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상담을 받을 경우 지원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39.2%로 가장 많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이 19.2%, '갈등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이 17.6%, '감정의 이해'가 16.3%, '적극적인 해결'이 6.5%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상담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성차가 보이는 부분은 '집단상담'의 경우로서 여성이 남성의 배에 달하는 비율로 이 형태의 상담을 선호하였다. 상담 장소로는 가족상담소가 154명으로 62.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개인상담소는 38명으로 15.5%, 종교단체가 17명으로 6.9%, 병원이 15명으로 6.1%, 기타가 15명으로 6.1%, 복지관이 6명으로 2.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본인의 집이나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카페, 야외 등이 있었다. 비록 수치는 낮았으나 남성은 여성보다 병원이나 복지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들은 가족상담소나 개인상담소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상담회수는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1회 혹은 한 달에 1회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는데, 1회만 상담받고자 하는 비율은 작은 수치이나 남성이 높았다. 원하는 상담자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의 84명인 34.3%가 '동성'을 원하였고, '이성'을 원하는 응답자는 30명으로 12.2%, '상관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3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3.5%를 차지하였다. 주목할 것은 남성의

<표 3>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부부갈등

변 수	남		여		t 값
	평균(표준편차)	여	남	평균(표준편차)	
부부갈등 영역	개인특성영역	10.77(2.59)	10.80(2.44)	10.80(2.50)	-.08
	부부관계특성영역	8.90(2.85)	8.19(2.49)	8.51(2.68)	2.04*
	공동생활특성영역	9.14(2.98)	9.06(2.77)	9.09(2.86)	.21
	제삼자특성영역	9.04(2.94)	8.39(2.88)	8.68(2.92)	1.74
	총합	37.85(9.89)	36.44(8.39)	37.07(9.10)	1.21
부부갈등 해결방식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11.50(4.62)	10.88(3.53)	11.16(4.06)	1.19
	회피	12.03(3.32)	11.49(3.05)	11.73(3.18)	1.32
	긍정적 문제해결	17.91(3.79)	17.51(3.64)	17.69(3.70)	.84

* $p<.05$

경우는 동성, 이성상담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비슷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동성 상담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단연 높게 나타났다. 상담요구에 대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3.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갈등 정도, 갈등 해결방식에 미치는 원가족특성의 영향

1) 부부갈등 영역에 미치는 가족규칙의 영향

가족규칙에 대한 부부갈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변수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가족규칙의 하위영역과 부부갈등 영역과 부부갈등 해결방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남녀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부갈등 영역에 대한 가족규칙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부부갈등 영역 지각에서는 제삼자특성영역에서 위계규칙($\beta=-.23,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족규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남성의 부부갈등 영역 지각에서는 모든 갈등영역에서 가족규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특성영역에서는 성·성역할규칙($\beta=.22, p<.05$), 부부관계특성영역에서는 생활규칙($\beta=-.26, p<.01$)과 성-성역할규칙($\beta=.06, p<.05$), 공동생활특성영역에서도 생활규칙($\beta=-.25, p<.05$)과 성-성역할규칙($\beta=.21, p<.05$), 제삼자특성영역에서는 생활규칙($\beta=.31, p<.001$)과 성-성역할규칙($\beta=.22, p<.05$), 감정규칙($\beta=.25,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결혼초기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부부갈등영역에 있어서 가족규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특히 성역할규칙은 남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들이 강한 성역할규칙을 내면화하고 있을 때 각 부부갈등영역에서의 갈등발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규칙의 하위영역은 결혼초기 기혼남성의 갈등 영역에서 개인특성영역은 변량의 12%($p<.01$)를, 부부관계 특성영역은 15%($p<.001$)를, 공동생활특성영역은 14%($p<.01$)를,

<표 4>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상담요구

N=245

내 용	남 녀 합계			내 용	남 녀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상담 경험	있음	5(4.5)	5(3.7)	10(4.1)	병원	10(9.1)	5(3.7)	15(6.1)	
	없음	105(95.5)	130(96.3)	235(95.9)	가족상담소	65(59.1)	89(65.9)	154(62.9)	
상담 받지 않은 이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0(9.1)	7(5.2)	17(6.9)	상담 장소	복지관	4(3.6)	2(1.5)	6(2.4)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1(55.5)	88(65.2)	149(60.8)	개인상담소	15(13.6)	23(17.0)	38(15.5)	
	시간이 없어서	6(5.5)	8(5.9)	14(5.7)	종교단체	9(8.2)	8(5.9)	17(6.9)	
	창피해서	1(0.9)	2(1.5)	3(1.2)	기타	7(6.4)	8(5.9)	15(6.1)	
	주변에 상담 할 곳이 없어서	11(10.0)	18(13.3)	29(11.8)	1회만	12(10.9)	8(5.9)	20(8.2)	
	경제적인 문제	2(1.8)	2(1.5)	4(1.6)	일주에 2~3번	9(8.2)	8(5.9)	17(6.9)	
	기타	19(17.2)	10(4.4)	29(11.8)	상담 횟수	일주에 1번	28(25.5)	44(32.6)	72(29.4)
부부 갈등시 상담 의뢰여부	예	51(46.4)	74(54.8)	125(51.0)	이주에 1번	15(13.6)	18(13.3)	34(13.9)	
	아니요	36(32.7)	21(15.6)	57(23.3)	한달에 1번	30(27.3)	38(28.1)	68(27.8)	
	모르겠음	23(20.9)	40(29.6)	63(25.7)	기타	14(12.7)	19(14.1)	33(13.5)	
상담 지원 종류	감정의 이해	13(11.8)	27(20.0)	40(16.3)	1회만	12(10.9)	10(7.4)	22(9.0)	
	갈등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12(10.9)	31(23.0)	43(17.6)	1개월 이내	27(24.5)	28(20.7)	55(22.4)	
	적극적인 해결	8(7.3)	7(5.2)	15(6.1)	3~6개월 정도	28(25.5)	50(37.1)	78(31.8)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끌어 줌	47(42.7)	48(35.6)	95(38.8)	1년 정도	13(11.8)	7(5.2)	20(8.2)	
	문제의 원인파악	25(22.7)	22(16.3)	47(19.2)	1년 이상 계속	19(17.2)	26(19.2)	45(18.3)	
	기타	3(2.7)	0(0.0)	3(1.2)	해결될 때까지	10(9.1)	14(10.4)	24(9.8)	
	상담 형태	전화상담	10(9.1)	8(5.9)	18(7.3)	상담자 성별	동성	22(20.0)	62(45.9)
사이버상담(E-mail포함)		10(9.1)	12(8.9)	22(9.0)	여성		24(21.8)	6(4.4)	30(12.2)
면접상담-본인만		9(8.2)	13(9.6)	22(9.0)	상관없다		64(58.2)	66(48.9)	130(53.1)
면접상담-부부가 함께		52(47.3)	67(49.6)	119(48.6)	상담자 연령	연상	53(48.2)	79(58.5)	132(53.9)
면접상담-문제가 있는 가족원 모두		9(8.2)	5(3.7)	14(5.7)		연하	6(5.5)	0(0.0)	6(2.4)
면접상담-문제와 상관없이 가족원 모두		5(4.5)	1(0.7)	6(2.4)		동년배	18(16.4)	18(13.3)	36(14.7)
집단상담-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8(7.3)	22(16.3)	30(12.2)		상관없다	33(30.0)	38(28.1)	71(29.0)
집단상담-다른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1(0.9)	1(0.7)	2(0.8)					
기타		6(5.4)	6(4.4)	12(4.9)					

제삼자특성영역은 23%($p<.001$)를 설명한다(<표 5> 참조).

2) 부부갈등 해결방식에 미치는 가족규칙의 영향

가족규칙 하위영역과 갈등 해결방식에 관한 남녀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에게는 가족규칙의 하위영역이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가족규칙의 하위영역이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에게 있어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에서는 생활규칙($\beta=-.29, p<.001$), 긍정적 문제해결에서도 생활규칙($\beta=.24, p<.05$) ($\beta=.15,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생활규칙의 정도가 강할수록 부부갈등에 있어 언어적·비

언어적 공격이 낮아지고 긍정적 문제해결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가족규칙들은 결혼초기 기혼남성의 갈등해결방식 중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변량의 27%($p<.001$)를, 회피 변량의 11%($p<.05$)를 설명한다(<표 6> 참조).

3) 부부갈등 영역에 미치는 부모자아상태의 영향

부모자아상태를 부부갈등 영역에 대해 남녀별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성에게서는 부모자아상태 중 통제적 자아가 개인특성영역, 부부관계특성영역, 공동생활특성영역, 제삼자특성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에게서는 부모자아상태 중 통제적 자아가 개인특성영역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부모자아상태 중 통제적 자아가 개인특성영역($\beta=.59, p<.001$), 부부관계특성영역($\beta=.51, p<.001$), 공동생활특성영역($\beta=.48, p<.001$), 제삼자특성영역($\beta=.58, p<.001$)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적 자아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제적 부모자아 상태가 강한 사람, 즉 부모에게서 통제를

<표 5> 부부갈등 영역에 미치는 가족규칙의 영향

변수	B (β)	
	남성	여성
개인 특성 영역		
생활규칙	-0.12 (-0.14)	0.12 (0.13)
성·성역할규칙	0.12 (0.22)*	0.01 (0.02)
위계규칙	0.11 (0.18)	-0.04 (-0.07)
감정규칙	0.05 (0.07)	0.00 (0.01)
R ²	0.12	0.02
Adjusted R ²	0.09	-0.02
F	3.61**	0.51
부부 관계 특성 영역		
생활규칙	-0.26 (-0.26)**	0.12 (0.09)
성·성역할규칙	0.14 (0.06)*	0.07 (0.09)
위계규칙	0.04 (0.05)	-0.10 (-0.12)
감정규칙	0.09 (0.12)	-0.08 (-0.06)
R ²	0.15	0.02
Adjusted R ²	0.13	-0.01
F	4.93***	0.64
공동 생활 특성 영역		
생활규칙	-0.24 (-0.25)*	0.10 (0.10)
성·성역할규칙	0.13 (0.21)*	0.04 (0.06)
위계규칙	0.09 (0.13)	-0.09 (-0.14)
감정규칙	0.09 (0.12)	-0.02 (-0.02)
R ²	0.14	0.02
Adjusted R ²	0.11	-0.01
F	4.26**	0.65
제삼자 특성 영역		
생활규칙	-0.30 (-0.31)***	0.09 (0.08)
성·성역할규칙	0.13 (0.22)*	0.11 (0.17)
위계규칙	0.05 (0.76)	-0.16 (-0.23)*
감정규칙	0.19 (0.25)*	-0.05 (-0.06)
R ²	0.23	0.05
Adjusted R ²	0.20	0.02
F	7.64***	1.73

* $p<.05$, ** $p<.01$, *** $p<.001$

<표 6> 부부갈등 해결방식에 미치는 가족규칙의 영향

변수	B (β)	
	남	여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생활규칙	-0.45(-0.29)***	0.05(0.03)
성·성역할규칙	0.24(0.25)	0.08(0.10)
위계규칙	0.01(0.01)	-0.15(-0.19)
감정규칙	0.40(0.32)	0.03(0.03)
R ²	0.27	0.03
Adjusted R ²	0.25	-0.01
F	9.81***	0.89
회피		
생활규칙	-0.08(-0.08)	0.13(0.11)
성·성역할규칙	0.13(0.19)	0.07(0.10)
위계규칙	0.02(0.25)	-0.08(-0.11)
감정규칙	0.17(0.19)	0.10(0.09)
R ²	0.11	0.03
Adjusted R ²	0.07	0.01
F	3.05*	1.01
긍정적문제 해결		
생활규칙	0.30(0.24)*	0.13(0.09)
성·성역할규칙	-0.07(-0.08)	0.01(0.01)
위계규칙	0.07(0.74)	-0.02(-0.03)
감정규칙	-0.07(-0.07)	0.08(-0.06)
R ²	0.08	0.01
Adjusted R ²	0.04	-0.02
F	2.23	0.38

* $p<.05$, ** $p<.01$, *** $p<.001$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자신을 통제하는 영역이 많아 지므로 그에 따른 부부갈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여성보다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통제적 자아가 개인특성영역($\beta=.27, p<.01$)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아상태는 결혼초기 기혼 남성의 갈등 영역 중 개인특성영역은 35%($p<.001$), 부부관계특성영역은 28%($p<.001$), 공동생활특성영역은 25%($p<.001$), 제삼자특성영역은 35%($p<.001$)를 설명하고, 결혼초기 기혼 여성의 갈등영역은 개인특성영역만 8%($p<.01$)를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가족특성 중 부모자아상태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부부갈등 영역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적 자아가 강할수록 부부갈등영역에서 갈등발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4) 부부갈등 해결방식에 미치는 부모자아상태의 영향

부모자아상태와 갈등 해결방식에 관한 남녀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에게는 부모자아상태 중 통제적 자아가 언어적·비언어적 공격($\beta=.47, p<.001$)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부모자아상태가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 두루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7> 부부갈등 영역에 미치는 부모자아상태의 영향

	변수	남	여
개인특성 영역	통제적 자아	0.27(0.59)***	0.13(0.27)**
	양육적 자아	0.01(0.01)	-0.01(-0.02)
	R ²	0.35	0.08
	Adjusted R ²	0.33	0.06
	F	27.56***	5.33**
부부관계 특성영역	통제적 자아	0.26(0.51)***	0.10(0.14)
	양육적 자아	-0.05(-0.08)	-0.04(-0.05)
	R ²	0.28	0.03
	Adjusted R ²	0.27	0.01
	F	21.02***	1.70
공동생활 특성영역	통제적 자아	0.26(0.48)***	0.08(0.08)
	양육적 자아	-0.03(0.08)	-0.03(-0.05)
	R ²	0.25	0.01
	Adjusted R ²	0.23	-0.01
	F	17.49***	0.66
제삼자 특성영역	통제적 자아	0.30(0.58)***	-0.03(0.14)
	양육적 자아	-0.03(-0.05)	-0.03(-0.05)
	R ²	0.35	0.02
	Adjusted R ²	0.34	0.01
	F	28.30***	1.55

*p<.05, **p<.01, ***p<.001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에게 있어서 통제적 자아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격($\beta=.59, p<.001$), 회피($\beta=.48, p<.001$), 긍정적 문제해결($\beta=.23,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남성의 경우, 긍정적 문제해결에서 양육적 자아($\beta=.37, p<.001$)와 더불어 통제적 자아가 함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통제적 자아가 강할수록 갈등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나, 통제적 자아는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문제해결에도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자아상태는 결혼초기 기혼남성의 갈등해결 방식 중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변량의 35%($p<.001$), 회피 변량의 22%($p<.001$), 긍정적 문제해결 변량의 16%($p<.001$)를, 결혼초기 기혼여성의 갈등해결방식 중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변량의 22%($p<.001$)를 설명한다(<표 8> 참조).

4. 상담요구별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부부갈등

상담요구별로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부부갈등을 조사하였다. 상담요구의 '예'와 '아니오'는 <표 4> 결혼초기 부부의 상담요구 중 부부갈등시 상담의뢰 여부에 따른 것이다.

1) 상담요구별 가족규칙의 차이

상담요구별 가족규칙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초기 기혼남성의 생활규칙($t=1.76, p<.001$)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표 8>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부모자아상태의 영향

	변수	남	여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통제적 자아	0.49(0.59)***	0.33(0.47)***
	양육적 자아	0.04(0.05)	-0.02(-0.03)
	R ²	0.35	0.22
	Adjusted R ²	0.33	0.21
	F	28.25***	19.03***
회피	통제적 자아	0.28(0.48)***	0.09(0.16)
	양육적 자아	1.54(0.02)	-0.04(-0.06)
	R ²	0.22	0.03
	Adjusted R ²	0.21	0.02
	F	15.48***	2.17
긍정적 문제해결	통제적 자아	0.15(0.23)*	-0.01(-0.01)
	양육적 자아	0.27(0.37)***	0.11(0.14)
	R ²	0.16	0.02
	Adjusted R ²	0.15	0.01
	F	10.48***	1.25

*p<.05, **p<.01, ***p<.001

타났으며, 성·성역할규칙, 위계규칙, 감정규칙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초기 기혼남성 중 상담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규칙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9> 참조).

2) 상담요구별 부모자아상태의 차이

상담요구별로 부모자아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초기 기혼남성의 통제적 부모자아($t=-1.60, p<.01$)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초기 기혼남성 중 상담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통제적 부모자아상태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0> 참조).

3) 상담요구별 부부갈등 영역의 차이

상담요구별 부부갈등 영역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초기 기혼남성의 부부관계특성영역($t=-2.17, p<.05$)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혼초기 기혼남성 중 상담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특성영역에서 갈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이는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이 더 낮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부부관계의 개선에 대한 의지도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표 11> 참조).

4) 상담요구별 부부갈등 해결방식의 차이

상담요구별 부부갈등 영역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초기 기혼남성에서는 회피($t=-.25, p<.001$)가, 결혼 초기 기혼여성에서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격($t=.53,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초기 기혼남성에서는 상담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회피를 통한 갈등해결방식이 낮고, 결혼 초기 기혼여성에서는 상담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이 높은 성향을 보인다. 이는 남성들에게서는 부부갈등 해결방식으로 회피를 선택하지 않는 남성들은 상담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며, 여성들의 경우에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을 더

<표 9> 상담요구별 가족규칙의 차이

변 수	남(N=87)			여(N=95)		
	예M(SD)	아니오M(SD)	t 값	예M(SD)	아니오M(SD)	t 값
가족						
규칙						
생활규칙	19.78(2.37)	18.56(4.12)	1.76***	20.24(2.84)	19.95(2.60)	0.42
성·성역할규칙	19.56(4.62)	20.69(4.87)	-1.09	17.80(4.60)	18.29(4.85)	-0.43
위계규칙	19.92(3.78)	20.56(4.36)	-0.72	19.89(4.79)	19.95(4.35)	-0.52
감정규칙	14.80(3.17)	15.72(3.36)	-1.29	12.45(3.07)	13.14(2.67)	-0.94

*** $p<.001$

<표 10> 상담요구별 부모자아상태의 차이

변 수	남(N=87)			여(N=95)		
	예M(SD)	아니오M(SD)	t 값	예M(SD)	아니오M(SD)	t 값
부모자아상태						
통제적 부모자아	26.02(3.96)	27.67(5.65)	-1.60**	27.68(5.28)	27.38(4.61)	0.23
양육적 부모자아	36.49(4.84)	34.00(6.10)	2.12	36.11(4.29)	34.71(5.05)	1.26

** $p<.01$

<표 11> 상담요구별 부부갈등 영역의 차이

변 수	남(N=87)			여(N=95)		
	예M(SD)	아니오M(SD)	t 값	예M(SD)	아니오M(SD)	t 값
부부갈등영역						
개인특성영역	10.38(2.16)	11.31(2.65)	-1.77	10.76(2.60)	10.71(2.61)	0.06
부부관계특성영역	8.39(2.12)	9.69(3.39)	-2.17*	8.64(4.14)	8.14(2.22)	0.50
공동생활특성영역	8.42(2.49)	9.89(3.33)	-2.34	8.92(2.63)	9.59(2.93)	-0.98
제삼자특성영역	8.24(2.55)	9.92(3.13)	-2.71	8.23(2.71)	8.95(3.54)	-1.00

* $p<.05$

<표 12> 상담요구별 부부갈등 해결방식의 차이

변 수	남(N=87)			여(N=95)			
	예M(SD)	아니오M(SD)	t 값	예M(SD)	아니오M(SD)	t 값	
갈등해결방식	언어·비언어적 공격	10.63(3.55)	12.11(4.79)	-1.65	11.05(3.57)	10.62(2.38)	0.53*
	회 피	11.82(3.04)	12.00(3.43)	-0.25***	11.57(3.08)	11.05(2.56)	0.71
	긍정적 문제해결	17.98(3.88)	17.36(3.57)	0.75	18.15(3.73)	17.48(3.54)	0.74

* p<.05, ** p<.01, ***p<.001

취하더라도 이들이 상담을 받을 의지가 더 높음을 보여준다(<표 12> 참조).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 부부갈등, 상담요구에 대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초기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특성 중 가족규칙은 비교적 강한 편이고, 부모자아상태 중 양육적 부모자아상태는 강하고 통제적 부모자아상태는 약한 편이며, 상담요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결혼초기 기혼남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중 부부갈등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이들은 전반적으로 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편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개별적인 영역에서 지각하는 갈등의 정도가 낮은 편이다. 갈등의 해결방식에 있어서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격, 회피는 낮은 편이며, 긍정적 문제해결은 높은 편이다.

MRI의 Jackson(1965; 장혁표 외 공역에서 재인용, 1988: 151)은 결혼이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협동관계로서 부부간의 "quid pro quo"(무엇을 위한 무엇)를 통해 협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quid pro quo"란 부부간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 및 부부 각자가 해야 할 일의 구분에 바탕을 둔 관계로서, 부부는 각자의 능력과 흥미를 바탕으로 하여 일종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결혼초기는 바로 이러한 "quid pro quo"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로서 이러한 타협과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갈등 발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적 개입 요구도 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상태로서는 상담 경험이 없지만 향후 부부갈등 시 상담을 받겠다는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규칙은 강한 편이지만, 나머지 성·성역할규칙, 위계규칙, 감정규칙 등은 약한 편이다. 이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원가족특성 중 가족규칙은 부모자아상태에 비하여 성차가 상대적

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데, 결혼초기 기혼남성들이 기혼여성들보다 가족규칙에 대한 지각이 더 강한 편이다. 위계규칙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규칙에서 성차가 있다.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규칙은 여성이 더 강하고 성·성역할규칙이나 감정규칙은 남성이 더 강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초기의 부부들은 원가족에서 형성한 가족규칙이 성별로 다르게 내면화된 상태로 결혼에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가족특성 중 부모자아상태는 양육적 부모자아상태나 통제적 부모자아상태 모두에서 성차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부부갈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차는 부부갈등 영역 중 유일하게 부부관계특성영역에서만 나타나는데, 남성들이 여성보다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하며, 갈등도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임상적 처치 경험이 없는 일반 결혼초기 기혼남녀들의 건강성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social desirability)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될 수 없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상담요구를 살펴보면, 결혼초기 기혼남녀들은 대다수가 상담 받은 경험이 없고 현재까지는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부부갈등 시에는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 선호하는 상담의 지원종류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며, 상담형태는 절반 가까이 면접상담을 원한다. 상담회수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상담기간은 3~6개월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결혼초기 기혼남녀들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상담자의 성별을 개의치 않으며 연상의 상담자를 선호한다.

둘째,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은 부부갈등의 정도와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원가족특성중 가족규칙은 결혼초기 기혼여성보다 주로 기혼남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규칙 중 성·성역할규칙과 생활규칙이 결혼초기 기혼남녀 갈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성역할규칙은 강할수록 갈등이 높게 지각되나 생활규칙은 강할수록 갈등이 낮게 지각된다는 것이다. 성과 성역할 규칙은 남녀성별에 관한 것이고, 생활규칙은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이다. 이를 감안해보면, 결혼초기 기혼남성들이 성·성역할규칙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 결혼생활의 각 영역에서 더 민감하고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생활에 관한 규칙을 많이 확립하고 있을수록 오히려 부부간 갈등의 소지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 중 가족규칙은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도 주로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결혼초기 기혼남성에게 있어 생활규칙이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남성들이 생활규칙을 약하게 지각할수록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이 감소하고 생활규칙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긍정적 문제해결은 증가하는 경향이다.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 중 부모자아상태는 주로 남성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영역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자아상태 중 통제적 자아는 남성의 개인특성영역, 부부관계특성영역, 공동생활특성영역, 제삼자특성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개인특성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주장적이고 비판적이며 처벌적이고 완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통제적 자아(김충기·강봉규, 2001: 225)가 강할 때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 중 부모자아상태는 주로 남성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영역의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남성에게 있어서 부모자아상태 중 통제적 자아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격과 회피에, 그리고 긍정적 문제해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양육적 자아는 긍정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여성에게 있어서는 통제적 자아가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 있어서 긍정적 문제해결에는 주로 통제적 자아가 아닌 양육적 자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는 타인을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며 보호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는 양육적 자아(김충기·강봉규, 2001: 225)는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상담요구별 원가족특성과 부부갈등은 부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담요구별 가족규칙의 차이에서는 남성의 생활규칙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즉 결혼초기 기혼남성에게 있어서는 상담요구가 있는 집단은 상담요구가 없는 집단보다 생활규칙이 강하다. 그 외 가족규칙의 성·성역할규칙, 위계규

칙, 감정규칙은 상담요구에 따라 차이가 없다. 생활규칙은 주로 일상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요구와 기대가 클 수 있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결에 대한 의지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상담적 개입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상담요구별 부모자아상태는 남성의 통제적 부모자아상태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즉 상담요구가 있는 집단은 상담요구가 없는 집단보다 통제적 부모자아상태가 약하다.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갖고 인정자극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내적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한 양육적 부모자아상태에 비해, 주장적이며 처벌적이고 완고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통제적 부모자아상태(설기문, 1995: 477)가 약할 경우 상담에 대한 개방성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상담요구별 부부갈등영역은 남성의 경우 부부관계특성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상담요구가 있는 집단은 상담요구가 없는 집단보다 부부관계특성영역에서 갈등이 낮다. 부부관계특성영역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애정, 성,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부갈등의 영역이며, 결혼초기의 부부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영역으로서 상호작용과 이후의 생활양식의 패턴을 정립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초기 남성 집단에서의 상담요구가 더 높은 것은 현재로서는 갈등이 더 낮은 것으로 지각하지만, 자신들의 부부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부부관계의 개선이나 결혼생활의 질에 대한 기대가 더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요구별 부부갈등 해결방식에 있어서는 결혼초기 기혼남성에서는 회피가, 결혼초기 기혼여성에서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결혼초기 기혼남성에서는 회피를 통한 갈등해결방식이 낮은 사람들이, 결혼초기 기혼여성에서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격이 높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하여 부부상담에 대한 요구가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상담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초기 기혼남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기대되는 원가족특성을 가족규칙과 부모자아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원가족특성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른 개념들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논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결혼초기 기혼남녀갈등을 부부 각자의 시각에서 파악하였다. 그런데 가족상담이나 치료현장에서는 상담을 요하는 각 부부들 안에서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를 통해 이러한 각 부부들에서 갈등의 차이를 포착해낼 수 있다면 상담 장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생활 5년 이내의 결혼초기 기혼남녀들이 연구초점의 대상이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상담요구를 분석하였다. 가족상담자나 치료자, 혹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는 가족생활양식이나 가족생활주기별로 상담요구가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족생활양식과 다른 가족생활주기를 경험하는 부부의 상담요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이나 연구주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은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상담요구를 조사함으로써 부부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특성이나 부부갈등을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개념들을 중심으로 시도해 본 측면에서 연구설계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상담요구별로 원가족특성과 부부갈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상담을 요청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차별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에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기대된다.

□ 접수 일 : 2006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06년 06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13일

【참 고 문 헌】

- 고현선·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대처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곽배희(1994). 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족문제 진단. **위기에 선 가족: 한국가족의 변화와 전망**. 서울: 다산출판사.
-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김경자(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규수·류태보(1993). **교류분석치료**. 서울: 형설출판사.
- 김명자(1998). 중년기 주부의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36(3), 61-75.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자(1992). 도시지역 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 갈등정도,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강봉규(2001). **현대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혜경(1986).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2001).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 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치영·최혜경(1996).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37-247.
- 변화순(1992).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으뜸시스템.
- 설기문(1995). 의사교류분석. 윤순임 외 공저. **현대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469-520).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송말희(1990).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 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37.
-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송의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성자(1998).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_____(2002). **가족과 가족치료(제2판)**. 서울: 법문사.
- 송성자·정문자(1994).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9(12), 239-252.
- 유계숙·천혜정·김양호·전길양(2003). **부부탐구**. 서울: 신정.
- 유영주·서동인·홍숙자·전영자·오윤자·이인수(1995). **결혼과 가족**.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1997).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옥선화(1999). 자기인식 향상을 통한 부부친밀감 증진 프로그램 시안. **대한가정학회지**, 37(8), 29-42.
- 이기춘(1989). **교류분석(TA)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학적 시각**. 서울: 기독교신학대학교 출판부.
- 이신영(1983).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

-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장영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7(1), 79-93.
-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혁표·제석봉·김정택 공역(1988). 가족치료: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Goldenberg, I. & Golenberg, H.(1985). *Family therapy: An overview*.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 역(2000).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Carter, B. & McGoldrick, M.(1996).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3rd). NY: Gardener press.
- 정외숙(2001). 결혼준비교육을 위한 요구도 및 실시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유계숙(2003).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조용현(1997). 자녀가 지각한 가정환경변인과 이코그램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교류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명민(1999). 대상관계 부부치료의 이론적 고찰 및 활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7(1), 31-51.
- 최현미(1997). 원가족척도연구: 결혼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남제(1984). 한국 도시가족 연구. 서울: 일지사.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원표(1993). 도시 맞벌이 부부의 갈등관계: 부산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bott, C. B.(1999). *Family members' conceptions of family ru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
- Bahr, S. J.(1989). *Family interac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Berne, E.(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 Brown, J. H. & Brown, C. S.(2002). *Marital therapy*. California: Brooks/Cole Inc.
- Coleman(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New York: The Bobbs-Merrill.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Gee, R. E.(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ules and methods of conflict resolution used by Asian American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Goldenberg, I. & Goldenberg, H.(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5th.). Belmont,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Olson, D. H. & Hawley, D. R.(1992). *Self-Training Counselor's Manual*. PREPARE/ENRICH Inc.
- Prager, K. J.(1991). Intimacy status and couple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4), 472-476.
- Sprey, J.(1971). On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1), 41-51.
- Strong, J. R.(1975). A marital conflict resolution model: Redefining conflict to achieve intima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1, 269-276.
- Wamboldt, E. S. & Reiss, D.(1989). Defining a family heritage and a new relationship identity: Two central tasks in the making of a marriage. *Family Process*, 28, 317-335.
- Whyte, L. K.(1990). *Dating, mating and marriage*. New York; Aldine de Gruyter.